

한국 대학의 FLE 문화 교육과 '시간'의 문화적 특성

- 한국과 프랑스의 음주 시간을 중심으로 -

정 우 향
(서울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시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흐름과 시계의 초침이나 달력의 날짜가 '시간'인 듯 간주되지만 엄밀히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개인이 어떻게 시간을 경험하는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물며 외국 문화에 속한 외국인의 일상 의사소통 상황별 시간의 경험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목표이다.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에 따르면 각 문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시간 경험을 발전시켜 왔으며, 시간은 공간이나 제스처나 시선, 얼굴 표정과 같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술자리 모임의 시간 경험에 대하여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살펴보면서, 술 모임의 양태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술 모임이란 주제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주제이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두 문화의 의사소통 방식을 압축하여 드러낸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집단과 개인의 관계,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을 분리하는 양태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양식 등이 프랑스와 한국 문화의 특성에 따라 술 모임에서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 분석하면서 한국 대학의 프랑스어 문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시간, 프랑스 문화, 한국 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 집단주의

I. 들어가며

‘시간’이란 주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현대의 하이데거와 베르그송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서양 철학사의 중요한 주제였다. ‘시간’이란 주제를 통하여 인간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던 서양 철학의 전통은 현대 문화 인류학 분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에드워드 홀과 같은 문화 인류학자들은 ‘시간’은 해당 공동체의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뉴턴적 모델에 입각한 서양 문화의 직선적 시간 구조와 절대적인 시간관념은 타 문화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드워드 홀에 따르면 ‘시간’은 “하나의 문화가 발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이다.¹⁾ ‘시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평소에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한다, 쓴다, 낭비한다, 관리 한다’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 자체가 시간을 분절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실체로 간주하는 일정한 시간관(時間觀)을 포함하는 말이며, 시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들은 모두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홀에 따르면 우리가 시간의 문화적 속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국 문화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서방세계의 사람들, 특히 미국인은 시간을 자연계의 고정된 것, 우리를 에워싸고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환경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방식으로 시간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자연스럽고 낯설게 느끼며, 실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도 그 생각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²⁾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는 일정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각기 다른 문화 공동체는 의사소통 상황

1) 에드워드 홀, 『침묵의 언어』, 최효선 역, 한길사, 2000, 12쪽.

2) 에드워드 홀, 같은 책, 30-31쪽.

별로 그에 맞는 공동체의 시간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의 시간 경험들을 학습하고 체화시키게 된다. '문화(culture)'가 한 민족의 생활 방식, 사상과 가치관, 물질적인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면, 시간이야말로 "사회의 다른 많은 측면들과 맞물리는 것을 해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문화"이다.³⁾

개인이 시간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홀을 비롯한 문화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이후, 외국어 교육 분야에도 문화 인류학 분야의 관점들은 폭넓게 수용되었다. 특히 '시간'은 '공간'⁴⁾이나 '제스처' 등과 같이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⁵⁾으로 간주되어 외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⁶⁾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도 목표 문화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들에 대한 이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론적 수단의 중요한 항목일 뿐만 아니라, 목표 문화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목표 문화의 '시간'에 대한 이해는 외국어와 외국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도 중요

3) 같은 책, 46쪽.

4) 외국어 교육에서 '공간'은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공간의 지각과 운용을 다루는 '공간학(proxemics)'을 말한다.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취하는 대화 거리나 공적 거리와 같은 공간 운용은 대화 상대방과 화자의 사회적 관계와 접촉 유형, 친밀도에 따라서 문화권 별로 달라진다.

5)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에는 발화 안에 언어 단위로 편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상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간', '공간', '제스처', '시선처리' 등의 항목들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언어적(verbal), 준언어적(paraverbal), 비언어적(nonverbal) 의사소통 양식으로 구분한다. 전통적인 외국어 교수법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운용방식, 제스처들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들을 외국어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화용론이나 담화 연구와 같은 현대 언어학의 연구 경향들과 문화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과 같은 외국어 교수법의 중요한 인접 학문들의 연구 성과들의 영향으로 외국어 교육자들은 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체의 문화적 코드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들에 대한 내용이 외국어 교재들에 포함되게 된다.

6) Defays, Jean-Marc, *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Liège: Mardaga, 2003, p.68.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시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프랑스의 술 모임의 시간’에 대해서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한국인과 프랑스인들의 서로 다른 시간관(時間觀)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특별히 ‘술 모임’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관련이 높은 주제이면서, 해당 문화권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한국인은 직장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와 ‘삼겹살’을 취하도록 마시며 프랑스인들은 주로 집으로 초대된 친구나 가족 모임에서 천천히 담소를 즐기며 ‘포도주’를 마신다는 식의 피상적인 차이가 아니라 문화권별로 표면에 드러난 술 모임의 시간 구성 방식과 행동 양식들을 이끄는 심층의 요인들은 무엇인지 탐색하면서, 우리는 한국 대학의 프랑스어 문화 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방향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시간’의 문화적 특성과 외국어 교육

이번 장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관련 있는 시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⁷⁾ 서양 지성사 속에서 오랫동안 ‘시간’은 서양 철학이나 물리학, 인류학 분야의 주제였다.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시간’의 측면은 ‘시간’과 관련된 어휘나 표현들, 동사의 시제의 문제 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는 목표어의 구성원들이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을 동원하는가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어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는 ‘시간’의 문제를 각 의사소통 상황에 발생하는 문화적 맥락으로서 간주하고,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7)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어 교육은 프랑스어나 영어, 중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개별 외국어의 특수한 교육적 맥락을 넘어 타 언어와 타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시간’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주제가 프랑스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문화 교육에도 해당된다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1.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에 따른 시간 경험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시간'은 목표어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의 주요 항목이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운용하고 구획하는 방식이나 시간을 경험하는 양태들은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정체성'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물질문화와 행동문화, 정신문화 영역의 모든 차원에 반영된다는 뜻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계획하고 통제하며, 경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나 경험들의 영향 하에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빨리 빨리' 문화⁹⁾는 전 세계인에게 알려져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한국인들의 대다수의 시간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방식은 '빨리 빨리'라는 말로 설명된다.¹⁰⁾ 초고속 압축 성장 속 질주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인, '빨리 빨리'는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했던 한국인의 생존 조건”과 결부되어 있으며, 오늘날 한국이 스피드 마케팅이나 인터넷 정보화 사회의 강국이 된 것은 모두 '빨리 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시간관과 연결되어 설명된다.¹¹⁾ 이와 같이 '빨리 빨리'는 오늘날 한국인의 시간관을 압축하여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한국인

-
- 8) 알프레드 그로세르에 따르면 '정체성'은 “한 민족 집단에 개별성을 부여해주고 집단 고유의 문화적인 특징들의 총체”를 말한다. '나'는 내가 속한 '소속들의 총합'이며 단일한 정체성이란 없다. 모든 개인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알프레드 그로세르, 『현대인의 정체성』, 심재중 역, 한울, 2002, 21쪽.
- 9)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교재에는 '빨리 빨리 문화'를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정문화, 판문화, 서열문화, 체면문화, 끼리끼리 문화'와 함께 한국인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경험한 '빨리 빨리 문화'에 대한 사례들에 대한 말하기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편, 『한양한국어 5』, 한양대학교출판부, 2014, 53-57쪽.
- 10) 한국인의 '빨리 빨리'는 '속전속결 주의'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박재환·이상성·일상생활 연구회 편,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한울아카데미, 2004, 56-58쪽 참고.
- 11) 강준만, 『한국인 코드』, 인물과 사상사, 2006, 51쪽.

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일상생활의 리듬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우리가 노동과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양상이나, 하루의 일상을 구획하는 방식 등에 걸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관점은 특정 문화권에 속한 개인의 유전자 속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통시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공시적으로도 타문화와의 교류로 인해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일본인들의 시간관 역시 ‘신속함’과 ‘효율’ ‘정확성’의 가치들과 결부되어 있지만 일본인들의 시간 인식이 변화한 것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이후라고 한다. 에도시대에 영국 외교관의 통역사로 일본에 체류하였던 에네스트 사토는 당시 일본인들의 시간 감각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당시 일반인들은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또한 시간엄수라는 인식도 없었다. 2시에 초대받아도 1시나 3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더 늦게 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일본의 시각은 2주마다 그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일출, 정오, 일몰, 한밤중을 빼면 하루의 정확한 시간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¹²⁾

1873년에 일본에 온 영국인 바질 홀 챔버레인은 유럽에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학자인데, 당시 일본인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미가 급해서는 안 된다. 일본인은 외국인의 뒤에서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웃거나 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급방 진행되지 않는다. 1시간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곧’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다다いま’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¹³⁾

12) 니시모토 이쿠코, 「시간에 관한 풍요로움과 빈곤의 관념: 속도사회에 대한 의문 제기」, 허문경 역, *Journal of Cittaslow*, vol. 6, 2012, 58-59쪽.

13) 니시모토 이쿠코, 같은 글, 61쪽.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과거 일본인들의 시간 감각은 오늘날 일본인들의 시간관과는 매우 다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기계식 시계가 수입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시계탑이 세워지는 등 시계의 보급과 함께 일본인의 시간 감각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1950년 이후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시기, 1970년대 'just in time'을 내걸면서 생산과정의 낭비를 없었던 도요타와 같은 기업 문화의 영향 등은 오늘날의 일본인들의 시간관에 영향을 주었다.¹⁴⁾ 예전의 '코리안 타임'이란 '약속한 시간 보다 늦게 오는 한국인의 습관을 빗댄 표현'으로 한동안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에는 프랑스인들 가정에 초대 받을 때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le quart d'heure de politesse) 늦게 도착하는 것이 예의라고 설명되어 있다.¹⁵⁾ 이러한 '초대' 상황과 관련된 프랑스인의 시간 감각은 타 문화권에서는 초대한 사람에 대한 무례로도 여겨질 수도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권별로 다른 시간관은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정체성'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관' 역시 개인이 속한 하위문화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변이형을 가지기도 하며, 개인의 시간관은 대다수 공동체가 공유하는 시간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적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황들과 연관된 시간에 관한 경험들과 인식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스테드에 따르면 한 국가의 '문화'는 "공통된 정신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는 시민의 반응 중 가장 일어날 확률이 많은 반응들의 집합"이다.¹⁶⁾ '시간'에 대한 문화 교육의 내용 역시 목표 문화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대다수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집단 정체성과 관련된 큰 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들 속에

14) 같은 글, 57쪽.

15) Grand-Clément, Odile, *Civilisation en dialogues : Niveau débutant*, 2007, Paris: CLE International, p.35.

16) 기어트 흡스테드,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나은영 역, 학지사, 1996, 167쪽.

서 목표 문화권의 화자들은 해당 상황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맺는가와 연관된 질문을 던지면서 타 문화권 사람들의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

2. 공동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다음으로 외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시간’의 문화적 특성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맥락이라는 점이다.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시간’ 자체를 비언어적 의사소통 항목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들과 달리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들은 구성원들 사이에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의사소통 상황에 개입하여 언어적 메시지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들은 종종 문화적 충격과 갈등, 의사소통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홀은 ‘문화’는 여러 가지 차원의 복잡한 ‘의사소통’이며 서로 다른 문화 간 교류 시 발생하는 오해와 의사소통의 단절이 각 문화 고유의 비언어적 행동 양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홀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으로서 ‘언어’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Le temps parle. Il parle plus simplement que les mots. Le message qu'il porte se transmet à haute voix et clairement. Parce qu'il est utilisé moins consciemment, il ne risque pas d'être dénaturé comme l'est le langage parlé. Il peut clamer la vérité quand les mots mentent.

시간이 말을 한다. 그 말은 말보다 더 간단하다. 그 메시지는 크고 분명하게 전달된다. 시간이 전하는 말은 언어에 의한 말에 비해 의식적으로 조작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왜곡될 위험이 적다. 말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것이다.¹⁷⁾

17) Hall, Edward T, *Le langage silencieux*, Paris: Les Éditions du Seuil, 1984, p.18.

즉 '시간'은 '공간'처럼 인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배경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 수단들의 의미들을 보완하거나 결정하며, 의사소통상의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의 전화는 언어적 메시지에 앞서 전화를 건 시간 자체가 서양 문화권에 서는 일반적으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란 메시지를 전달한다. 약속시간을 몇 분이나 늦으면 상대방에게 무례한 것이 되는지, 공공장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를 허용해야 하는지, 식사나 여가 시간에는 어떤 대화주제가 금기가 되는지, “Adieu” “Au revoir” 라는 헤어질 때 하는 프랑스어 인사말은 다음 만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지, “언제 밥이나 먹자” 라는 한국인의 말은 미래의 어느 시간에 실현될 것을 함축하는지는 등은 모두 해당 문화권의 ‘시간관’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실제 의미하는 바가 언어적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들을 동원하거나 문화적 지식들에 의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시간’은 물리적 자연적 실재라기 보다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화적’ 구성물이다. 특정 문화는 의사소통 상황 별로 반복되는 시간 경험을 축적하고, 해당 상황에 부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들을 만들어간다. 목표 문화의 ‘시간’은 “기층문화의 무의식적이고 숨겨진 문법”을 드러내며 “해당 문화권 사람들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생활의 기본적 템포와 리듬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이 문화에 따른 시간관념과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시간 인식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⁸⁾

Ⅲ. 음주의 시간: 한국과 프랑스의 음주 문화를 중심으로

이번 장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술 모임의 ‘음주의 시간’의 양태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면서, 앞에서 논의한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시간’의 문화적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양상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8) 에드워드 홀, 앞의 책, 12쪽.

1. 한국인의 음주 시간

1) ‘음주’라는 의례¹⁹⁾와 집단 정체성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동창회’나 ‘직장 회식’ 등의 술 모임 등의 횡수와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양, 주량에 관계없이 술을 강권하는 모습들에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²⁰⁾’을 경험한다. 외국인들은 1차, 2차로 장소를 옮겨가며 평일에도 새벽까지 취하도록 마시는 한국인들을 보면 ‘취하는 게 모임의 목적인 거 같다’라는 식의 놀라움을 표시하지만, 술 모임의 기저를 이끄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서들은 한국 문화의 특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박재환에 따르면 “음주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존 사회의 물적 조건과 문화 일반의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²¹⁾ ‘술’을 마시는 것, 특히 모임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들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들이 술을 마시는 경향과 술 모임에서 벌어지는 양태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음주 습관을 넘어 사회 문화적 차원의 시간 경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최재석은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미분화”²²⁾를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규정하였는데 한국인의 술 모임과 시간 역시 이러한 한국

19) 이기중은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이란 논문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술 문화가 종교 의례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과 유사한 양태를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 머시아 엘리아데와 빅터 터너와 같은 문화 인류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술 문화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의례’라는 문화인류학적인 의미보다는 한국문화의 가치관과 대인 관계의 유형이 ‘집단적인 음주 행위’ 위주로 이루어지는 술 모임에서 일정한 정도의 규칙성과 관습화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국제한국학회 편,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1998, 79-106쪽 참고.

20) 『영어 교육 사전』에 따르면 ‘문화적 충격’이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겪게 되는 불안이나 근심 등의 강한 감정 상태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외국에 이민 갔을 때 그 새로운 나라의 문화권에 익숙하고 친숙해질 때까지 여행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 충격이란 사소한 성급함에서부터 심리적인 고통과 위기의식에 이르기까지의 현상을 가리킨다. 조명원·이홍수, 『영어교육사전』,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2004, 183쪽 참고.

21)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편, 『술의 사회학: 음주공동체의 일상문화』, 한울아카데미, 1999, 6쪽.

22) 일상문화연구회 편, 『한국인의 일상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한울, 1996, 49쪽.

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관찰된다.²³⁾ 해리 트리안디스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성²⁴⁾

개인주의(individualism)	집단주의(collectivism)
성취(achievement)	귀속(affiliation)
자기주장(self-assertion)	존중(respectfulness)
평등조직(equalitarian organization)	위계조직(hierarchical organization)
자율성(autonomy)	상호의존성(mutual dependence)
실패에 대한 공포(fear of failure)	거절에 대한 공포(fear of rejection)
시스템 중심(principle-centeredness)	사람 중심(person-centeredness)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현재지향성(present orientation)
자기를 내세움(self-importance)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self-effacement)
창의적(being creative)	순응적(conforming)
물질적(material)	정신적(spiritual)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이나 홍콩,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로서 분류된다.²⁵⁾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유교의 가치관이 사회윤리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이루는 나라이다. 최준식에 따르면 “한국

23)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역사학이나 사회학의 시각을 아우르는 통합 학문적인 견지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한국학 분야의 연구자들 역시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집단주의' 개념을 빈번하게 차용한다.

24) 김경환, 「동서양 정신문화 원형 정리」,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제17권 2호, 2008, 194-195쪽.

25) 문화권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연구한 홉스테드는 전 세계 50개국 116,000명을 대상으로 기업 구성원들의 행동경향에 대한 국가별 조직 구성원들의 문화 가치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집단 중심적 성향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과 대만, 홍콩 등 동양권 국가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목표나 욕구가 우선시되고, 감정적인 유대가 있는 내집단으로서의 가족의 개념이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성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홉스테드, 앞의 책 81-120쪽 참고.

인들의 대인 관계나 조직 문화는 철저하게 유교의 영향 아래서 형성된 것'이며 '효'와 '장유유서' 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족주의는 집단주의를 배태"시켰다.²⁶⁾

한국인의 술 모임과 양태들을 관찰해보면 한국 문화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음주 습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작음주(對酌飲酒)'이다. 여럿이 마셔도 자기 스스로 따라 마시는 '자작음주(自酌飲酒)'와는 구별되는 형태로서 '위하여'라는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원 샷(one shot)'을 종용하는 것은 대작음주가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인의 모임 술자리의 흔한 장면이다. 한국인의 일상 문화로서 이러한 대작음주 문화는 같이 술 마시는 이들에게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부여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²⁷⁾ 술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화제에서 배제되고 누적되면 친밀한 인간관계의 망에서 배제되게 된다. 한국에서 술자리는 "사실상 '술' 마시는 자리이기보다는 사회적 동지관계가 형성·강화되는 일종의 장(場)이며 술은 하나의 '미디어'이다".²⁸⁾ 이와 같이 한국인에게는 "혼자서는 술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음주 문화 심리가 존재한다. 음식과 술을 이웃과 나누는 전통, 조선 시대 두레나 품앗이와 같이 힘을 합쳐 같이 일을 처리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는 술'은 조선 시대 음주 문화의 정수이다.²⁹⁾ 전통적으로 한국의 모임에는 보통 술이 빠지지 않고,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보통 취할 때까지 마시며, 술이 취하는 것에도 비교적 관대하다.³⁰⁾ 우리 민족에게는 "자고로 술 한 잔 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이 통하고 술 마시고 하는 실수쯤은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식의 '술 친화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³¹⁾ 또

26) 국제한국학회 편, 앞의 책, 1998, 117-119쪽.

27)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편, 앞의 책, 49쪽.

28) 같은 책, 53쪽.

29) 노순규, 『주폭(酒暴)과 음주 문화의 개선』,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 169쪽.

30) 백승국에 따르면, 한국인은 프랑스인에 비해 술의 질보다는 양의 가치를 추구하며 '동국여지승람' 등과 같은 역사적 문헌의 기록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술의 양적 소비는 사회 구성원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aik, Seung-Kuk, "Analyse sémiotique sur la culture de vin", 『불어불문학 연구』 제61집, 167-185쪽.

31)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편, 앞의 책, 74쪽.

한 강압적으로 '폭탄주'와 같은 술을 마시게 하고, 1차와 2차, 3차로 이어지는 장시간의 술 모임은 집단적인 노래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³²⁾

이와 같이 음주는 친구 사귀기와 직장 조직 생활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한국인의 일상이고, 직장 생활에서는 팀워크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³³⁾ 1차와 2차 등 장소를 이동하면서 마시고, '빨리 빨리'라는 한국인의 기질에 맞게 빨리 취하고자 하며, 내림술, 술잔 돌리기, 한 번에 술잔 비우기, 술 권유하기와 같은 음주 압력이 벌어지기도 한다.³⁴⁾ 또한 직장 내의 회식과 음주는 직장 상사와 직원들 사이의 정을 돈독히 하고 의사소통을 촉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담론들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만약 술을 좋아하는 상관이 '퇴근 후 가볍게 한잔'이라고 제의할 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박 모(34)씨는 매주 목요일이면 팀 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량이 소주 반병인 박씨는 3차까지 폭탄주로 일관하는 회식이 부담스럽다. 박씨는 "팀 분위기가 단합을 위해 다 같이 마시고 취해야 한다는 식이어서 술잔을 거부하기 어렵다" 며 "술로 몸이 망가지는 것 같고 금요일엔 온종일 숙취로 괴롭다"고 말했다.³⁵⁾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직장과 학교, 동호회 등에서 벌어지는 한국 사회의 술 모임은 한국인 개인이 술과 대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취향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폭음과 강권'의 회식 문화와 사회 생활하려면 술을 어느 정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과 과음과 폭음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음주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엠티, 동아리 뒤편이 등에서 술이 '동질감'을 얻는

32) 김문점,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한울 아카데미, 1993, 291쪽.

33) 노순규, 앞의 책, 150쪽.

34) 같은 책, 182쪽.

35) 같은 책, 244쪽.

도구로 활용되거나 ‘사발식’ 등 통과 의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³⁶⁾ 예를 들어 ‘해장술’, ‘약주’, ‘폭탄주’, ‘후래자 삼배’³⁷⁾, ‘쏘맥’, ‘애주가’ ‘술친구’ ‘낮술’ 등 은어나 비속어, 줄임말의 형태로 상용되는 술에 관련된 한국 어휘들을 살펴보면 맥주나 소주, 막걸리와 같은 한국인에게 친근한 술들의 속성이나 술 맛에 대한 것들보다는 술을 마시는 양태와 술자리에 동반한 사람들에 관한 것들이다. 요즘은 ‘혼술(혼자 마시는 술)’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지만 직장 회식이든 대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이든, 인터넷 등산 모임의 동호회 뒤풀이든 간에, 주종이 소주이든 맥주이든 막걸리든 간에 한국인들이 모임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보통은 ‘함께’ 마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영삼에 따르면 한국은 ‘알콜 연출의 사회’ ‘주본주의(酒本主義)’사회이며, “우리사회에서 술과 술자리는 단순한 여흥 혹은 스트레스의 해소를 넘어 일의 성패에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의 생산 메커니즘’ 혹은 ‘사회적 재생산 메커니즘’ 인 것이다.”³⁸⁾

2) 고맥락 의사소통의 시간

한국인의 술 모임의 두 번째 특성은 ‘고맥락 의사소통이 벌어지는 시간’이라는 점이다. 홀은 각 문화권을 저맥락 의사소통이 위주가 되는 사회와 고맥락 의사소통이 위주가 되는 사회로 구분하였다. 저맥락 문화(low-context culture)는 “대부분의 정보를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말하며, 개인주의 문화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함축하는 용어이기도 하다.³⁹⁾ 저맥락 문화에서는 언어적 메시지에 의존하여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말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에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에서는 내포적이고 간접

36) 2012년 2월 보건복지부 음주문화연구센터가 전국 63개 대학생 4,061명을 대상으로 음주 문화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폭음자’로 집계되었으며 폭음자중 주 1,2회 이상 술을 마시는 수시 폭음자는 42.3%, 주 3회 이상 상습 폭음자는 28%였다. 노순규, 앞의 책, 189-194쪽 참고.

37) ‘뒤에 온 사람’이란 뜻으로 한자어 ‘後來者’로 부터 만들어졌다. ‘후래자 삼배’는 술자리에 늦게 도착하면 3잔을 연달아 마셔야 하는 벌주를 일컫는다.

38)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편, 앞의 책, 48-49쪽.

39) 홉스테드, 앞의 책, 97쪽.

적인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해야만 의미 파악이 가능하고 보통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상황 맥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⁴⁰⁾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맥락 의사소통'이 주로 발생하는 사회로 간주된다.⁴¹⁾ 특히 한국인의 술자리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은 한층 더 고맥락 의사소통의 시간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심리와 대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인 '체면'과 '눈치'는 한국인의 음주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눈치'란 "남의 마음이나 일의 낱새를 알아 챌 수 있는 힘"을 말한다.⁴²⁾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적절하게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뜻하며, 한국인들의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눈치'야 말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들을 토대로 한다. 한국어의 "알아서 해" "적당히 해" "답답해. 꼭 말을 해야 알아듣나?"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한국의 대인 관계가 얼마나 언어적 메시지로는 속뜻을 알아채기 힘든 고맥락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는지 알게 된다.

단합을 도모한다는 직장 체육 대회나 등산이 내 개인 시간인 주말에 개최되는 것이 치가 떨리게 싫지만 빠지려면 없는 친척을 돌아가시게 만드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한다. 술 한두 잔도 겨우 먹는 체질이지만 회식 때 돌아가는 잔을 거절하여 흥이 오른 타인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더 싫기에 일단 받아먹고, 음료수 잔에 벨는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주당들의 흥이 오르면 장단을 맞춰 취한 척하는 메소드 연기가 필요하다.⁴³⁾

위에 나타난 것처럼,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닌 직장이나 다른 조

40) 마크 냅·주디스 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최양호 외 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2, 634쪽.

41) 홉스테드, 앞의 책, 106쪽.

42) 이기문 감수, 『새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4, 437쪽.

43)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 2015, 8쪽.

직의 술 모임에서 한국인들은 주량이 약해도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 하며, 술자리 참여자의 분위기를 관찰하면서 언어와 행동방식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눈치’를 보면서 술자리의 분위기에 맞게 언어나 행동을 조절하고, 함께 취하고, 때로는 ‘체면’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간의 경계를 푸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술자리는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 ‘체면’⁴⁴⁾유지를 위한 행동 역시 한국인의 술 모임에서 포괄적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직장 회식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작게 하고 남들과 부딪치는 것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자 한다. 친구들과 사이의 모임에서도 체면을 실추시키는 언행은 피하고자 하며, ‘자기 과시’ ‘허세’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체면 유지 전략이 동원되기도 한다. 신세대들과 함께 변화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술 모임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구성원 각자가 정확히 분담하여 내는 것은 아직도 매우 이례적이다. 직장 회식은 회사 부담이고 동창회와 같은 성격의 술 모임은 회비를 분담하여 계산하나, 보통 연장자나 모임의 권력 서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생들의 음주 자리에서는 선배가 보통 부담하는 것도 ‘체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의 술 모임에서는 언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이 진행된다. 마크 냅과 주디스 홀에 따르면 개인주의 성향의 국가들과 집단주의 성향을 갖는 국가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44) ‘체면(face)’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교자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나 인상을 말한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체면’은 남들로부터 자신의 자율성과 능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나 간접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체면을 구기거나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취하는 전략들(신중함, 점잔빼기, 말수 줄이기, 명분과 핑계 대기)과 같은 ‘소극적 체면’과 자기 과시나 허세와 같은 ‘적극적 체면’으로 나타난다.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은 인간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체면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체면의 상실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설명하였다. 국제한국학회 편, 앞의 책, 174-175쪽 참고.

〈표 2〉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비언어적 의사소통⁴⁵⁾

개인주의	집단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	기존의 익숙한 관행에 따른 환경, 의식, 보편적인 행동방식 중시
자신감을 표출하는 눈의 응시와 음성 신호	순종적인 행동, 집단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억제
독특한 의복과 개인 얼굴 등의 매력을 부각시킴	집단에 해가 될 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회피, 예의범절 중시

위의 표를 한국인의 술 모임에 적용시켜 보아도, 한국인의 술 모임이 주로 벌어지는 장소나 술자리의 언어와 암묵적인 행동 규칙들은 집단주의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술 모임의 양태들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술을 함께 마시면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과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가 강요하는 강도 높은 노동과 사회적 압력을 벗어난 ‘일탈’과 ‘카오스(chaos)’의 순간을 잠시나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동창회나 직장 회식, 동호회 등 크고 작은 집단의 일원으로 마시는 한국인의 술 모임은 “정서적인 만족감과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연출망의 형성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며,⁴⁶⁾ 술자리를 함께 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모임의 구성원들의 집단 정체성과 관계된 고맥락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2. 프랑스인의 음주 시간

이번 장에서는 ‘포도주’로 대표되는 프랑스인들의 음주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이 직장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즐겨 마시는 ‘소주’와 프랑스인들의 모임에서 결코 빠지는 법이 없는 ‘포도

45) 마크 냅·주디스 홀, 앞의 책, 633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46) 일상문화연구회 편, 앞의 책, 74쪽.

주'가 각각 한국인과 프랑스인에게 상징하는 가치와 기능들은 단순히 종류가 다른 술과 그에 연관된 음주 습관의 차이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Pas de bon repas sans bon vin !(좋은 포도주 없이는 멋진 식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포도주는 프랑스인들에게 단순한 술이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patrimoine culturel)의 일부로 인식된다.⁴⁷⁾ 포도주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보는 무한하며, 한국에도 포도주를 애호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원산지 표기 포도주(AOC)나 보르도나 부르고뉴와 같은 유명 포도주 산지, 소믈리에(sommelier)나 테루아르(terroir)와 아로마(arôme), 부케(bouquet) 등과 같은 포도주 관련 전문 용어들,⁴⁸⁾ 백포도주는 생선과 함께, 적포도주는 육류와 어울리며, 포도주 잔을 잡는 요령이나 마실 때의 매너들에 대한 다양한 상식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프랑스 포도주에 대한 광대한 백과사전적 지식보다 프랑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신다는 행위의 의미’나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이다. 마르셀 모스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음식문화는 그 나라 문화의 속성을 담고 있다. 프랑스 문화는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받은 라틴문화를 뿌리에 두고 있는데 라틴문화의 특징은 한 국가에 소속되는 단체생활에서의 규율보다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창의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자유로운 성향을 지녔다는 점이며, 프랑스의 음식문화 역시 라틴 문화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물이다.⁴⁹⁾ 프랑스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 속에는 프랑스인들의 가치관과 사고 체계 속에서 노동 후의 여가 시간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여기에 그들이 부여하는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정보

47) Grand-Clément, Odile, *op.cit.*, p.36.

48) ‘AOC’는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의 약자로서 ‘원산지 명칭의 통제’를 뜻한다. 소믈리에(sommelier)는 포도주 관련 서비스를 전담하는 직업을 뜻한다. ‘테루아르(terroir)’는 한국어로 ‘풍토’를 뜻하며, 기후, 토양의 성질, 지형, 관개, 배수 와 같은 포도밭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을 일컫는다. ‘부케(bouquet)’는 발효나 숙성과정에서 나오는 향이며, 아로마(arôme)는 원료인 포도에서 나오는 향을 뜻한다. 김준철, 『와인, 어떻게 즐길까』, 살림, 2006 참고.

49) 김태형, 「음식 철학 속에 담긴 프랑스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고찰」, 『시대와 철학』 제24권 4호, 2013, 90-91쪽.

들이 담겨 있다.

1) 개인이 주체가 되는 템푸스(tempus)의 시간 경험

‘식도락(gastronomie)⁵⁰⁾’의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진 프랑스인들에게 포도주는 우선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식사와 함께 마시는 술이다. 아침 식사를 제외한 매끼 식사에 포도주가 곁들여지는 것은 프랑스인들에게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프랑스인들의 식사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향,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사교의 장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를 바 없으나, 식사에 동반되는 음주 문화를 중심으로 관찰해보면 한국인의 음주와는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인다.

시간에 쫓기는 현대 사회의 리듬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습관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인들에게 손님을 초대 하였을 때나 친구와의 여가 시간에 포도주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노동 시간과 완전히 분리된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식도락의 시간이다.⁵¹⁾ 모임의 성격에 따라 대화의 주제와 식사나 음주 매너에 ‘눈치’나 ‘체면’ 기제가 동원되어야 하는 한국인의 음주 시간과는 달리, 프랑스인들의 식사 모임은 음식과 술을 통한 오감 만족의 시간, 모임의 ‘화기애애함(convivialité)’ 등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는 자리이다.

그리스의 존재론적 전통의 시간관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프랑스인들이 포도주들을 곁들이는 식사 시간에 경험하는 시간은 객관적으로 표상되는 시간인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시간인 ‘템푸스(tempus)’의 시간이다.⁵²⁾ ‘템푸스’로 경험되

50) ‘식도락’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가스트로노미(gastronomie)’는 19세기 초에 『식도락(*La Gastronomie ou l'homme des champs*)』의 저자 베르슈(Berchoux)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트로노미(gastronomie)’는 과거 미식가를 뜻하던 ‘구르메(gourmet)’보다 식도락을 연구하고 구상하여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는 프랑스 음식 문화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최영수·김복래 외, 『와인에 담긴 역사와 문화』, 북코리아, 2005, 105쪽 참고.

51) Steele, Ross,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Paris: CLE International, 2002, p.160.

52) 서양 철학사의 오랜 연구 주제인 ‘시간’은 히브리적 전통의 시간관념과 그리

는 시간은 시계의 초침이나 달력의 숫자로서 표시되는 표준화된 시간이 아니다. ‘Tempus fugit(시간이 쏜 살같이 흘렀다)’라는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라틴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흐름의 시간이다. 포도주와 관련된 프랑스의 음주 문화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행위가 프랑스인들에겐 템푸스의 시간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양한 양태를 보여준다. 프랑스인들에게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다. 프랑스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대부분 ‘오감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음주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포도주의 맛이나 향, 미각의 느낌 등을 묘사하는 수많은 프랑스어 어휘들을 살펴보면 포도주를 마신다는 행위에 동반되는 다양한 감각의 열림이 어휘들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포도주 관련 용어들⁵³⁾

감각	포도주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프랑스어 어휘들
양상 ⁵⁴⁾	brillant, bourbeux, crémant, limpide, larmes, pétillant
코	animal, balsamique, féminin, floral, fumé
색깔	pourpre, robe, rubis, tuile, vieil or
미각	corsé, gras, mœlleux, rond, vert

스의 존재론적 전통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받아 탐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간(temps)’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어원을 갖는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 ‘템푸스(tempus)’로 구분될 수 있다. 크로노스는 객관적이고 물리적 의미의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와 템푸스는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의미의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기독교의 시간관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시간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템푸스’를 사용하였다. 한국동서철학회 편, 『시간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9 참고.

53) 최영수·김복래 외, 앞의 책, 119-122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54) ‘양상’은 ‘시각’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다. ‘brillant’은 연하고 밝은 색과 맑은 색 사이 정도의 투명도를 가리키며, ‘bourbeux’는 원래 더러운 흙탕물을 가리키는 말로,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의 베일같은 막을 묘사할 때 사용되며, ‘limpide’는 먼지나 불순물 없이 투명한 포도주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김복래가 정리한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포도주의 질을 감별하는 전문가 아니어도 포도주 자체가 오랜 숙성과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술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때는 포도주의 색깔과 향기, 입안에 퍼지는 풍미를 맛보게 된다. 프랑스인이 포도주를 ‘원 샷’한다는 것은 한국인이 소주잔을 들어 투명한 소주의 빛깔과 향기를 음미해보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된다. 한국인의 포도주 애주가들도 알고 있는 포도주와 관련된 복잡한 매너들은 사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단계들을 충만히 음미하고자 했던 프랑스인들의 오랜 전통 속에서 축적되어 온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다. 예를 들어 손의 뜨거운 체온으로 인해 포도주 풍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도주 잔을 잡는 요령부터, 포도주의 향기가 서서히 퍼질 수 있도록 잔을 삼분의 이 정도만 채우는 것, 포도의 향기와 발효 과정의 향기를 구분하는 과정, 혀끝에서 달콤한 맛을 느끼는 첫 순간부터 입천장과 입안 전체로 액체의 농도를 느끼는 과정까지 포도주를 음미할 때 프랑스인들이 자연스럽게 거치는 순서와 방법들은 “미각의 생리학(physiologie du goût)에 유독 민감한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는 본질적인 개인적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⁵⁵⁾

2) 노동의 시간과 분리된 시간

프랑스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시간은 보통 ‘노동의 시간’과 완벽하게 분리된 개인 ‘여가의 시간’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인들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임 자체를 가족이나 지인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시간의 의사소통 역시 한국처럼 ‘눈치’나 ‘체면’과 같은 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직장인들에게 한국어에 존재하는 ‘회식’이라는 말은 매우 생소한 말이며 한국의 일반적인 회사의 직장 회식에서 종종 벌어지는 한국의 술 문화는 프랑스인들에게 문화적 충격(choc culturel)의 대상이 된다.⁵⁶⁾ ‘술자리는 근무의 연장’이며 음주를 중심으로 한 직장 회식의 빈도

55) 최영수·김복래 외, 앞의 책, 103쪽.

56) 한국의 모 대학에서 프랑스어 교수로 근무하는 프랑스인은 한국의 문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음주 문화’를 지적하면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Dans les pays individualistes comme la France, c’est presque impensable de forcer quelqu’un à boire, c’est comme nier sa liberté individuelle. Il n’y a

가 매우 높은 한국의 술 문화는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중동의 국가들이나 같은 아시아 국가 외국인들에게도 종종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술 모임의 한국인들이 개인의 주량이나 취향에 관계없이 술 마실 것을 강요하거나 ‘원 샷’을 외치는 것, 또 그것을 또 순응하며 들이키는 술자리 참여자들의 모습이 매우 낯설다. 그러나 한국의 직장 회식이나 단체 음주 방식이 프랑스의 음주 문화와 비교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점은 단순히 폭음을 하는 정도나 걸음으로 드러나는 술 마시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인들이 술을 마시는 시간에 부여하는 관점과 의미가 한국인의 술 모임과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에게 식사하며 포도주와 같은 술을 마시는 시간은 온전한 개인의 시간, 낮 시간의 노동과 분리된 시간이다.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을 분리하는 프랑스인들의 가치관은 다른 서양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인류학자이며 프랑스 전문가인 로렌스 와일리는 미국인들에 비해서도 프랑스인들은 여가 시간과 노동의 시간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인들의 낮 시간 동안의 ‘커피타임(coffee break)’과 ‘봉투에 담은 점심거리(brown bag lunches)’, ‘주말과 짧은 정기 휴가’를 보내는 방식 등을 살펴보면 미국인들에게는 노동과 여가 시간이 프랑스인들처럼 극명하게 단절되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다.⁵⁷⁾ 프랑스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편집된 FLE 문화 교재들의 대화문이나 설명에서도 프랑스인들이 식사나 여가 시간에 부여하는 의미들이 소개되어 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pas de 회식 en France. C'est une contrainte du groupe sur l'individu(프랑스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의 국가들에서는 누군가에게 술 마실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에는 회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일종의 강요니까요). 한국어를 모르는 발화자가 ‘회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발음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회식’에 관련된 한국인의 익숙한 관행들이 프랑스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게 하는 사항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57) 로렌스 와일리·장 프랑수와 브리에르, 『프렌치 프랑스』, 손주경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379쪽.

Le réunion de ce matin avec le grand client du Texas...[...] Après on est allé au restaurant pour continuer à discuter. Le service était lent...interminable. En plus, il n'arrêtait pas de recevoir des coups de téléphone sur son portable pendant tout le repas et il répondait. Je trouve ça vraiment désagréable et impoli. [...] A la fin du repas, il s'est senti mal. J'ai dû appeler un taxi pour le raccompagner à l'hôtel. Je crois qu'il avait un peu trop bu.

오늘 아침에 텍사스에서 온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었지요.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끝이 없었는데, 게다가 그는 모든 식사 시간동안 전화를 계속 받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답을 했지요. 나는 그의 행동이 정말 불쾌하고 예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내가 택시를 불러서 호텔까지 데려다줘야 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이 마셨던 거 같아요.⁵⁸⁾

위의 인용문은 사업가인 프랑스인이 미국인 사업가와 가진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푸념하는 발화의 일부분이다.⁵⁹⁾ 식사 시간에 전화를 받고, 사업상의 모임 자리에서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은 프랑스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쉽다. 사업상의 만남이나 손님을 접대할 때도 1차와 2차와 같이 장소를 옮겨가며 만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에도 비교적 관대한 편인 한국인의 모임과는 다른 규칙이 프랑스 문화에서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On peut aussi inviter un client, un collaborateur, un collègue. C'est alors un «repas d'affaires» : une manière agréable de mieux connaître pour mieux travailler ensemble. On ne parle affaires qu'au dessert ou au café !

58) Grand-Clément, Odile, *op.cit.*, p.34.

59) 실제로 수집된 원어민 발화는 아니지만, '가공 자료(document fabriqué)'들도 가장 자연스러운 가상의 의사소통 상황을 가정하여 최대한 원어민들이 해당 상황 속에서 말함직한 발화의 형식과 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의 발화는 교재 제작자들의 개인적인 선입견을 넘어서 프랑스인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미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프랑스인)도 손님이나 동업자, 동료를 초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갖는 식사”라 하지요 : 서로 잘 알고 함께 잘 일하기 위한 기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일 이야기는 디저트나 커피 마실 때만 합니다 ! 60)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처럼 점심식사를 위해 직장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하는 프랑스인들은 드물다. 점심 식사 때에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포도주 한잔과 함께 노동의 시간과 완전히 구분되는 순간을 만끽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빠른 생활의 리듬 속에서도 여전히 프랑스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 방식이다. 주당 3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다가 여름 바캉스에는 일상을 탈출하여 3주 이상의 긴 휴가를 갖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가의 시간과 노동의 시간을 구분하고자 하는 프랑스인들의 가치관은 음주의 시간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발견된다.⁶¹⁾ 프랑스인들도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맥주 한잔을 마시거나 포도주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직장이든 동호회든 연말 모임이나 정기적으로 ‘단합대회’식의 술 모임을 갖기를 즐겨하는 한국인에 비해 매우 드물고 비정기적(occasionnel)이다. 하물며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직장 회식이나 주말에 열리는 체육 대회나 등산 모임 등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관습이다. 문화가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정신적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한국인 대다수가 암묵적으로 순응하는 관행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적응하는 개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조직 내에서의 조화를 중시하고 사회의 크고 작은 조직들을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여기는 성향이 강한 유교 윤리의 영향

60) Grand-Clément, Odile, *op.cit.*, p.35.

61) 프랑스 노동 운동의 한 측면은 ‘여가 시간의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1936년에 처음으로 법에 의해 모든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매년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았으며, 1956년에는 3주, 1969년에는 4주, 1982년에는 5주의 유급휴가를 보장 받게 되었다. 로렌스 와일리와 장 프랑수아 브리에르는 미국의 고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피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었으며 바캉스 기간을 늘리는 것이 미국 노동조합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로렌스 와일리·장 프랑수아 브리에르, 앞의 책, 376-385쪽 참고.

을 강하게 받은 한국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노동 시간과 여가의 시간이 완전히 분리되기가 어렵다.⁶²⁾ 반면에 프랑스인들에게 낮 시간의 노동과 퇴근 후의 시간, 주중의 노동과 주말의 여가 시간은 명백히 단절된 시간으로 인식된다. 한국 직장인들이 종종 경험하는 퇴근 후의 지하철에서 업무 사항을 지시하는 직장 상사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은 프랑스인들에게는 개인의 사적인 시간의 침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나 국가 이념과 함께 소개되기도 하는 프랑스인들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은 “모든 영역에 정확히 경계를 짓고 그 영역들을 보호하려는”⁶³⁾ 성향으로 나타나며 일상 여가의 시간을 구성하는 내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IV. 나오며: 타자의 '시간' 경험의 이해와 외국어 문화 교육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시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의 문제는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일상 의사소통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흡스테드

62) 흡스테드는 집단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는 고용주와 종업원간 관계는 가족 관계와 같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각되며 언제나 집단의 조화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간관계의 측면이 중시된다고 지적하였다. 흡스테드, 앞의 책, 106쪽 참고.

63) 로렌스 와일리와 장 프랑수아 브리에르는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영역을 보호하려는 프랑스인들의 행동양식들이 역사적인 요인들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존이나(개인, 가족, 사회계층, 국가, 도시구역, 직업 그리고 생산물 등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온갖 유형의 침범이나 간섭을 그들은(=프랑스인들)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역사에 기인한다. [...]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부국인 프랑스는 외국의 공격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역사상 십여 차례의 침입을 경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한 세기 반 동안 다섯 번에 걸쳐 침공하였다(1792, 1814, 1870, 1914, 1940). 이것은 프랑스인들의 정신에 심각한 흔적을 남겨 놓았다. 이 정신의 흔적은 모든 영역에 정확히 경계를 짓고 그 영역들을 보호하려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에서 발견된다.” 로렌스 와일리·장 프랑수아 브리에르, 앞의 책, 97쪽 참고.

에 따르면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일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습득은 인식, 지식, 기술의 3단계를 거친다. 인식은 모든 것의 시발점이다.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정한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다른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지닌다는 인식 말이다.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두루 여행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신적 프로그램이 상대적임을 알리는 모든 단서에 눈과 귀를 막아버리게 된다.⁶⁴⁾

한국 문화의 토양 속에서 자라나서 술을 배우고 친구나 조직 내에서 음주를 경험한 한국인들은 일상의 반자동적인 행위들과 언어들 속에 문화적 요인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일종의 ‘집단의 정체성’의 일부를 개인으로서의 한국인들은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회식 술자리의 기억도 적응을 하게 마련이며, 어느 새 개인으로서의 구성원은 집단 다수의 행동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음주의 시간을 한국과 프랑스로 비교하여 살펴본 것은 한국의 술 문화는 프랑스의 술 문화와 비교해 볼 때 문제가 많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하여 ‘나(moi)’의 시간과 ‘타자(autrui)’의 시간은 그 실제 시간 경험 속에서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진행될 수 있으며, ‘시간’은 문화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문화로서 ‘음주의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대표적 특성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흔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설명되는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가치관들과 단기간에 이룬 경제 성장 속에서, 경쟁하고 생존해야 했던 한국 사회의 근 현대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으로써 ‘인맥’을 형성하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여가 활동을

64) 홉스테드, 앞의 책, 327쪽.

꿈꿀 수조차 없었던 기성세대의 음주 문화는 개인주의 성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직장 회식이나 각종 모임의 술자리가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의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를 위시한 타 문화권에 서는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인에게 한국인의 술자리, 술을 마시는 시간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언어와 행태들이 오고가는 '타자의 시간'이다. 역으로 한국인에게 포도주 한잔 놓고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은 채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프랑스인들의 일반적인 모임의 음주 문화 역시 '타자의 시간'이다. 프랑스인과 한국인이라는 비교 설정이 아니어도 동일한 모국 문화권내에서도 서로 다른 하위문화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는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 경험은 다르다. 외국어 교육과 외국 문화 교육은 새롭게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신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홀이 지적했듯이 "무의식적인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리"이며,⁶⁵⁾ 모국 문화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자국 내의 수많은 하위문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같은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지녔다고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나'와 다른 '타자'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의 문화 강의들은 언어 교육과 병행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지역학 차원'이나 백화점 문화 강좌 수준의 흥미 유발 위주의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시간'과 관련해서는 목표 문화의 '시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savoir), 운용하는 방식을 의사소통 상황과 결부시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고(savoir-vivre), 최종적으로는 타문화의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과 태도(savoir-être)를 가지게 하는 것이 외국어 문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들이라고 생각한다.⁶⁶⁾

65) 에드워드 홀, 『문화를 넘어서』, 최효선 역, 한길사, 2000, 341쪽.

66) 로베르 갈리송에 따르면 "(문화는) 서로 분명하게 해주고 서로 설명해주는 문화 간의 관계 설정과 비교를 통해 타인과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만든다.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나 ‘상호문화’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내용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⁶⁷⁾ 한국 대학의 프랑스어 문화 강좌들은 방대한 문화 교육의 범위로 인해 한국 문화와 비교하는 문화 교육 접근 방법에 관한 논의들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였다.⁶⁸⁾ 외국어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목표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은 학습자 자신의 모국 문화에 대한 통찰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문화 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과 방법론들이 학습자의 모국 문화인 한국 문화와의 비교와 성찰을 통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간’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를 학습자의 모국 문화인 한국 문화의 가치관이나 한국인의 집단 정체성과 연관시키는 과정을 통해 접근하는 FLE 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화는 자기 소속 집단의 편협한 지평선을 넘어서고 좀 더 폭넓게 사회화함으로써 교육적 기능을 한다”. 외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가치의 상대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마달레나 드 카를로,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장한업역, 한울 아카데미, 2011, 96-97쪽 참고.

67) 강승혜 외, 『한국 문화 교육론』, 형설 출판사, 2010, 216쪽.

68) 윤애선·김애선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학부제 이후 한국 대학에 신설된 문화 관련 신설 교과목은 ‘문화 총론 및 각론’과 ‘언어와 문화’ ‘프랑스 관련 지역’에 관한 강좌들로 구분된다. ‘프랑스인의 일상문화’ ‘프랑스 현대 대중문화 연구’, ‘프랑스어권의 문화’ ‘유럽 문화의 이해’ ‘프랑스의 풍물과 지리’ 등과 같은 강의 명칭들로는 프랑스 문화 교육이 한국학과 연관된 비교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대학 FLE의 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면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애선·김애선, 「‘프랑스 지역문화와 언어’ 교과목 설계」, 『프랑스 문화 연구』 제6집, 2001, 96쪽 참고.

■ 참고문헌

- 강승혜 외, 『한국 문화 교육론』, 형설 출판사, 2010.
- 강준만, 『한국인 코드』, 인물과 사상사, 2006.
- 기어트 홉스테드,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나은영 역, 학지사, 2000.
- 김경한, 「동서양 정신문화 원형 정리」,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제17권 2호, 2008.
-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한울아카데미, 1993.
- 김준철, 『와인, 어떻게 즐길까』, 살림, 2006.
- 김태형, 「음식 철학 속에 담긴 프랑스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고찰」, 『시대와 철학』 제24권 4호, 2013.
- 국제한국학회 편,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1998.
- 니시모토 이쿠코, 「시간에 관한 풍요로움과 빈곤의 관념: 속도사회에 대한 의문제기」, 허문경 역, *Journal of Cittaslow*, vol. 6, 2012.
- 노순규, 『주폭(酒暴)과 음주문화의 개선』,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
- 로렌스 와일리·장 프랑수아 브리에르, 『프렌치 프랑스』, 손주경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마달레나 드 카를로,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장한업 역, 한울아카데미, 2011.
- 마크 냅·주디스 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최양호 외 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2.
-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 2015.
-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 편, 『술의 사회학: 음주공동체의 일상 문화』, 한울아카데미, 1999.
- _____,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한울아카데미, 2004.
-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 연구소 편,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섯』, 강, 2014.
- 알프레드 그로세르 저, 『현대인의 정체성』, 심재중 역, 한울, 2002.
- 에드워드 홀, 『문화를 넘어서』, 최효선 역, 한길사, 2000.

- _____, 『침묵의 언어』, 최효선 역, 한길사, 2000.
- 이기문 감수, 『새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4.
- 일상문화연구회 편, 『한국인의 일상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한울, 1996.
- 윤애선 · 김애선, 「‘프랑스 지역문화와 언어’ 교과목 설계」, 『프랑스 문화 연구』 제6집, 2001.
- 정우향, 『외국어와 문화의 소통 교육』, 박이정, 2016.
- 조명원 · 이홍수, 『영어 교육 사전』,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2004.
- 최영수 · 김복래 외, 『와인에 담긴 역사와 문화』, 북코리아, 2005.
- 한국동서철학회 편, 『시간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9.
-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편, 『한양 한국어 5』, 한양대학교출판부, 2014.
- Baik, Seung-Kuk, “Analyse sémiotique sur la culture de vin”, 『불어불문 학 연구』제61집, 2005.
- Beacco, Jean-Claude, *Les dimensions culturelles des enseignements de langue*, Paris: Hachette, 2000.
- Besse, Henri, *Méthodes et Pratiques des manuels de langue*, Paris: Crédif, 1995.
- Cuq, Jean-Pierre, *Dictionnair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Paris: CLE International, 2003.
- Defays, Jean-Marc, *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Liège: Mardaga, 2003.
- Germain, Claude, *Évolution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 5000 ans d'histoire*, Paris: CLE International, 1993.
- Grand-Clément, Odile, *Civilisation en dialogues*, Paris: CLE International, 2007.
- Hall, Edward T, *Le langage silencieux*, Paris: Les Éditions du Seuil, 1984.
- Steele, Ross,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Paris: CLE International, 2002.
- Vion, Robert, *La communication verbale*, Paris: Hachette supérieur, 1992.

❖ ABSTRACT

'Time' in French Cultural Education

Jung, Woo-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concept of time conveys meanings similar to nonverbal communicative element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surveys cultural traits of time from the French cultural education perspective. Anthropologist Edward T. Hall points out that each cultural community has developed a different perception of time and experience, and that time conveys the meaningful message nonverbally similar to the nonverbal elements such as space, gesture, eye movement, and facial expression. I investigated the time experiences of a drinking party in France and in Korea, from a cultural relativistic point of view. The subject of a drinking party was chosen on the ground that a drinking party is highly related to most people's daily lives and it also indicates how they have a relationship with others.

I sought a new direction in foreign language cultural education by analyzing how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especi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ways to separate leisure and labor, and the nonverbal elements, are presented in the two drinking parties.

Key Words : time, French culture, Korean culture, nonverbal communication, collectivism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